

올해도 흑자행진... 광주은행 잘 나갑니다

누적 당기순이익 846억원... 전년비 37.5% ↑

특진제 통한 동기 부여·수도권 전략점포 확대 등

김한 행장 취임 후 변화... 혁신적인 도전 성과

광주은행(행장 김한·사진)의 성장이 가파르다. 광주은행의 2017년 2분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으로 2분기 중 417억원, 상반기 누적으로는 84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누적) 37.5% 증가한 것이다.

지난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 증가했고, 분기중NIM(순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2.26%를 나타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자 여신 비율은 0.57%, 연체비율은 0.56%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0.11%p, 0.08%p 개선이 됐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 동기대비 5.4%p 감소한 48.3%를 기록했다. 또한 BIS자기 자본비율은 15.53%로 전년 동기 대비 1.73%p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 2016년 당기순이익 1034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8개 은행 가운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2017년도 1분기에는 428억원, 2분기에는 417억원으로 안정적인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안정적인 순이익 시현에는 지속적인 원

화대출금 증가와 자산구조의 개선으로 NIM이 꾸준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상반기 기준 큰폭(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으로 늘었다는 점과 고정이자 여신비율이 0.57%, 연체대출비율이 0.56%를 기록해 큰 폭의 자산성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은행의 이 같은 약진은 김한행장 취임 이후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금융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인 고객군과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했기 때문이 가능했다.

우선 은행권 최초로 텔러-일반직 직군 구분을 없앴으며 특진 제도를 통해 조직에 탄력을 부여했다. 이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로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김한 행장은 지역은행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발상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서울·인천 등에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밖에서 벌여 지역민을 쓰겠



김한 행장

다"는 김한 행장의 평소 소신과 전략의 실현이었다.

김한 행장은 광주·전남지역 비효율 점포를 통폐합 하고 남은 인력을 신규 수도권 영업점에 배치해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해까지 30번째 점포를 수도권 지역에 개점했으며 수도권의 유동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승통을 크게 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수도권 공략시 건물 2층 이상 점포 임점 및 소규모 점포 운영으

로 고정비 최소화와 소형 전략점포 위주의 소매금융 전략으로 평균 누적 순이익분기점 달성 시점을 기존 3년에서 1년~1년 6개월로 단축시켜 저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그 대응책으로 기존 창구에서 이뤄졌던 예·적금, 대출의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채널로 전환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비대면 업무 확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JB금융그룹은 2017년 2분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으로 2분기 중 875억원, 상반기 누적 1582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전년 동기 대비(누적) 22.8% 증가한 수치다.

이번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첫째,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과 대내외 우호적인 금리환경 및 자산구조의 개선에 따른 NIM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둘째,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판관비가 안정되었으며, 셋째 부실여신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고 지속적으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실질 대손비용률이 역대 최저수준인 0.38%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서 지표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2.71 (+1.72)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0)
↓ 코스닥 650.47 (-2.48)	↓ 환율 (USD) 1119.00원 (-3.10)

광산업 특별법 제정 준비 '착착'

광산업진흥회 법률안 검토 착수... 국비사업 수입 등 성과 풍성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올해 상반기 각종 사업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산업 특별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해 11월 국회 장애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표발의 한 광산업 특별법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등 광융합산업 발전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재 국회 소관위 심사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법률안 검토에 착수하는 등 올해 관련법 제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진흥법이 제정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기반기술인 광융합 산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광산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올해 상반기 국비사업 수입 등을 통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지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사업 실적은 지난해 6월말 기준 68억 50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실적은 148억원으로 116% 확대됐으며 지난 6월말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로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신규 수입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산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도 지정받았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조명 분야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진흥회는 국내 광산업 발전과 외연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15건의 국비지원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산자부 등에 신규 국비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며 "올해 말 광산업특별법인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 광주가 지켜달라" 거리로 나선 직원들

"더블스타 매각시 뛰워 우리 브랜드 가치·지역경제 타격" 임·직원, 노조 80여명 호소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될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노조가 채권단측에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해외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금호타이어 임·직원 80여명은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금호타이어가 지역 대표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이 함께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1960년 출범해 5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과 함께 발전해 온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이 더블스타로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며 "더블스타는 규모나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금호타이어보다 뒤쳐져 있으므로 매각하면 브랜드 가치 저하로 말미암은 매출감소와 협력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



지난 31일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이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에서 시민들에게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금호타이어의 해외자산을 확보한 후 국내 공장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떡튀'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직원 전원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금호타이어를 업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까지 영업이익 10%를 달성하는 우량기업을 만들고 글로벌 일류

품질의 고객지향적 제품을 정성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2노조 조합원들도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900여 개의 특허 기술만 빼먹고 본국으로 달아날지도 모르는 더블스타를 위해 대리인을 자처하지 말고 매각 협상을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각이 성사된다면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국내 공장은 축소나 폐지되고 대량의 해고 상황은 뻔한 수순일 것"이라며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더블스타 해외자본 매각에 결사반대하며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레몬맛 호가든 맛보세요"

유자·체리 이어 세번째 한정판

벨기에 정통 밀맥주 호가든(Hoegaarden)이 여름을 맞아 '호가든 레몬' 한정판을 출시했다.

호가든 레몬은 지난해 10월 말 겨울을 맞아 선보인 '호가든 유자', 올해 3월 봄 시즌 출시한 '호가든 체리'에 이은 세 번째 기획 제품이다. 호가든 고유의 밀맥주 맛에 신선한 레몬 과즙을 더한 상큼한 풍미가 특징이다.

500ml 캔 제품으로만 출시되는 이번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호가든과 같은 4.9도로, 한국에서만 제조·판매된다. 이달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여름 한정 제품으로 만날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이 2000원대 초중반에 형성될 예정이다.

허브, 과일 등 다양한 맛의 맥주를 개발한 벨기에 사람들의 청의성과 오랜 전통 기법의 만남을 통해 탄생한 맥주로, 늘 새롭고 흥미로운 결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는 게 호



가든 측의 설명이다.

호가든 관계자는 "레몬은 특유의 상큼한 맛과 향으로 무더위 속 갈증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이라며 "유자, 체리에 이어 시즌에 어울리는 혁신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구이 와 규 전문점
참숯구이 돼지갈비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